가족의 여가활동이 영유아기 및 학령초기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보령 베이비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진 미 정(서울대 부교수) · 한 경 혜(서울대 교수)
장 미 나(서울대 연구원) · 변 주 수(서울대 박사과정)

본 연구는 2011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보령메디앙스의 산학협력 연구(연구책임자: 한경혜)의 일환으로 수집된 보령 베이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기, 유아기, 학령초기 자녀를 둔 가족의 여가활동의 빈도, 만족도, 불만족 원인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여가활동이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16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 중 영아(0-2세), 유아(3-5세), 학령초기(6-8세) 자녀를 둔 어머니 2,188명이며,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령별 자녀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영아기는 DEP, 유아기는 K-CDI,, 학령기는 SDQ를 조사도구로 활용하였다.

가족여가활동은 놀이공원 및 동・식물원 방문, 영화 및 공연 관람, 나들이, 국내여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당일코스의 나들이였으며, 응답자의 50%는 한 달에 1~2회 이상 나들이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외의 활동들은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원하는 만큼 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이 남편의 시간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9%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본인이 느끼는 전반적인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28%)에 비해 불만족하는 비율(40%)이 더 높게 나타나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가족여가생활을 누리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해석할 수 있다.

가족여가활동과 자녀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영아기의 경우에는 놀이공원 및 동・식물원, 나들이, 국내여행 등의 여가활동이 대근육운동, 소근육, 발달 총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나들이의 경우는 대근육운동, 소근육, 의사소통, 사회정서, 인지, 기본생활, 총점의 모든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서는 발달 위험군에 있는 아동에 비해 정상군에 있는 아동들이 가족여가활동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초기에서는 영화・공연 관람은 정서문제, 품행문제, 전체(정서행동)문제와 놀이공원 및 동・식물원, 나들이, 국내여행은 모든 영역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여가활동이 빈번할수록 영유아기 및 학령초기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되고, 정서문제나 행동문제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발달에 가족여가생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횡단적 조사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가족여가활동이 청소년기 뿐 아니라 영유아기나 학령초기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성이나 문제행동 뿐 아니라 신체발달이나 인지발달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